



특집

Feature articles

육계관련 분야별 산업 전망

2005년 종계 · 부화업 전망

지난 2004년 한 해를 돌아해보면 우리 양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 제시와 함께 소비변화와 질병 등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양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불황과 호황이 교차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한 해이기도 했다.

과거 2년여간에 걸친 육계업계의 불황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2003년 12월 청천벽력과 같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언론에서 연일 살처분하는 장면을 방영하는가 하면 인간과의 교차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되면서 2004년 1, 2월까지 닭고기 소비가 평년 대비 약 30% 이하까지 감소하는 바람에 각 부화장들은 가격은 고사하고 병아리가 발생하는 날이면 병아리를 입추하는 농장이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해 렌더링 처리를 해야 했던 뼈아픈 기억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육계농가도 생산원가는 말할 것도 없고, 출하를 하지 못하여 중량이 초과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료값을 걱정해야

했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급기야 상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정부가 나서서 긴급히 육계를 수매하고, 종란 폐기처분과 종계 조기도태, 원종계 수입량 조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소비 촉진대책을 병행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국내 흐름과 계속산물 수출국인 태국, 미국,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바람에 양계산물 가격은 사료비 인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상회하는 경기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

수입이 증가할 여지가 높아지자 새해의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종 육계인들이나 종계인들이 2005년의 육계업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큰 원종계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육계업 경기는 그야말로 변수가 많아 항상 예측을 벗어나기 일쑤여서 경험만으로 경

기 전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뿐 아니라 부담이 큰 만큼 각종 통계와 여타의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통계로 본 2005년도 병아리 생산 잠재량

증계 입식량은 지난 '90년대 중반 경부터 증가세를 보여 연간 약 400만수대가 입식되어 실용계 생산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UR 협상 이후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자동화가 급속히 추진된 원인도 있고, 국민소득 증가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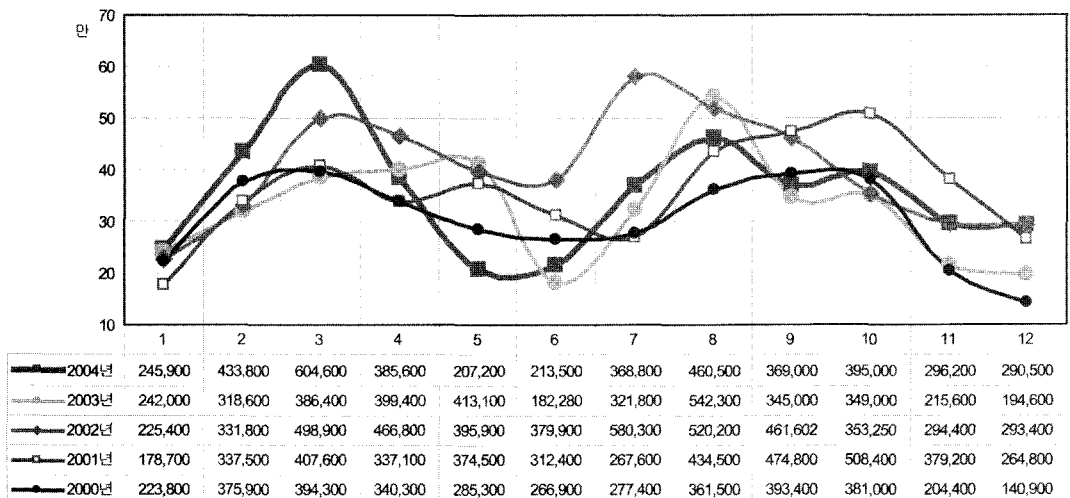
그러나 증계입식량이 소비량을 앞질러갔기 때

문에 2000년대로 갈수록 실용계 병아리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증계입식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000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2년에는 480만수대라는 경이적인 물량이 입추되어 2003년은 연간 내내 불황의 골이 깊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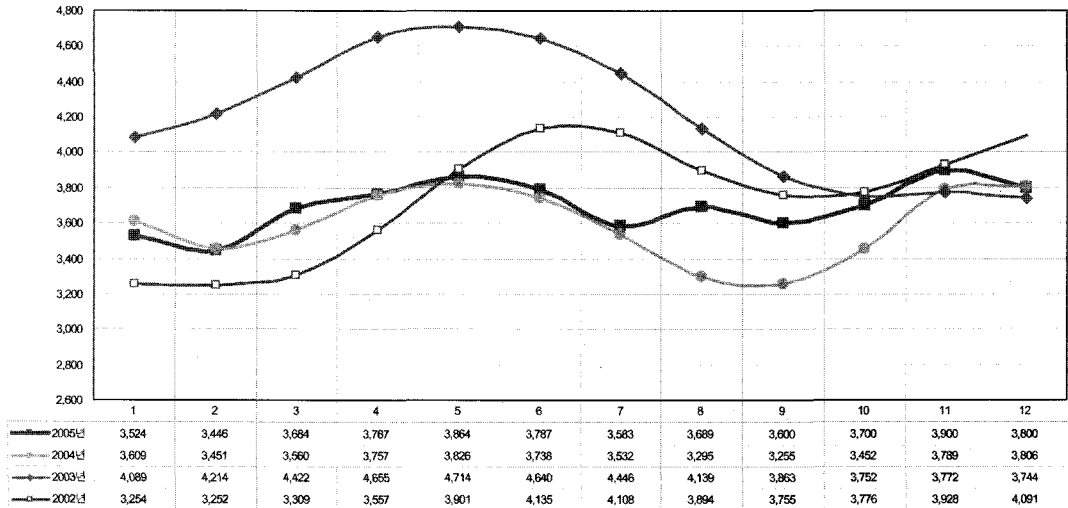
불황이 지속되자 업계에서 증계 조기 도태와 입추 자체가 겹쳐지면서 다시 2003년부터 입추량 감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기점으로 하여 원증계 수입수수를 자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

지난해 증계입식은 1/4분기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2003년에 비해 전체적인

<표 1> 지난 5년간 증계분양 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물량이 약간 증가했다는 점이 2005년 상반기 병아리 물량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새해부터 닭고기 수입에 대한 변수가 커지고 있어 종계 입식수수의 적정량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은 종계입식과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4년 흐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에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선 이상을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에 도태시기 연장 계군이 약간씩 늘어나면서 소폭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종계입식량을 감안할 경우 기본적인 큰 틀은 2004년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4억5천만수대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계속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소비가 답보상태를 보일 경우 병아리 생산량은 증가폭이 미미하더라도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육계업 경기도 냉각될 수 있고, 수입량이 예상보다 증가폭이 커지게 된다면 현재의 실용계 수준도 과잉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경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부정적 변수

① 닭고기 수입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가 조만간(상반기 내)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 국내경기가 계속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소비가 답보상태를 보일 경우 병아리 생산량은 증가폭이 미미하더라도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육계업 경기도 냉각될 수 있고, 수입량이 예상보다 증가폭이 커지게 된다면 현재의 실용계 수준도 과잉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

있다. 그간 육계업은 자체적인 수급조절 노력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한 결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닭고기 수입량 감소로 안정세를 보였다. 만일 닭고기의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던 2004년 초 전후 수준으로 수입이 재개될 경우 수입량이 60~70%가 증가하므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역시 가격 하락이다.

② 경기흐름

국내경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냉각되어 소비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업계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서서 경기 부양을 요구할 만큼 다급한 입장에 놓여있다. 닭고기 소비 역시 소득이 감소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상황이 불투명하다.

닭고기 소비의 최대 걸림돌은 시중 경기의 불황이라 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수출감소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연초부터 소비부진과 경기회복을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점을 볼 때 닭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질병

질병 발생은 여러가지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유발시켜 소비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특히 금년 겨울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질병 발생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어 닭고기 생산량에도 변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국에서 발생하면 소비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어 동남아나 중국 등지의 닭 질병 발생에 이르기까지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농장의 차단방역에 신중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긍정적 변수

① 종계장 Data base의 구축으로 종계의 생산 주령 제한

우리나라 종계의 권장 사육기간은 16개월(68주)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기여하에 따라 그

이후까지 생산(사육연장, 환우 등)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높을 때에는 종계분양수수 대비 25%를 상회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할 정도이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종계의 분양시점부터 도태에 이르기까지 관리하여 생산기간 연장이 제한될 경우 닭고기가 수입되는 물량 정도의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할 여지가 있으며, 병아리 품질을 향상시켜 긍정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② 원종계(GPS) 수입 제한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원종계 회사들은 이미 업계 스스로 정한 물량 한도내에서 원종계(GPS)를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동이 없는 만큼 종계 공급도 안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양계업은 누가 뭐라 해도 생물을 다루는 산업이다. 생물은 언제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변동되며, 생산량과 수효량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언제나 좋은 상황만 지속시킬 수는 없다. FTA 확대로 세계시장이 하나로 되어가는 만큼 가격중심의 경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육종회사에서는 앞으로 수년 이

내에 사료요구율(FCR) 1.4, 30일 이내 1.5kg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육종 프로그램을 거의 끝냈다고 한다. 육계농가에서 출하 일령이 짧아질수록 더욱 중요(비율증가)한 것은 초기관리(육추기간)이다. 육추 기간에 양질의 충분한 사료를 섭취할 경우 출하까지 강건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최근 육종회사들이 권장하는 새로운 사양관리 기법이다.

이렇듯 육종기술이나 사료 생산기술 등이 발달하면 사양관리도 뒤따라 갈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늘날 계열화 업체가 전 육계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종계가 판매되는 상황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약 80%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계열화 업체와 관련이 있지만 아직도 20% 정도의 유사계열업체 및 기타 유통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유사계열업체나 일반 유통업자들은 대개 일반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매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체 병아리 생산 물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통상 부분적인 다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양계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C



이상배 부장
(주)삼화육종